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교회와 담임목사는 KPCA 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 서노회 소속(밴쿠버삼성교회, 밴쿠버지
구촌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우광현 담임목사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
회(통합) 교단이였으며, 서울북노회에서 안수
받았습니다.

KPCA 해외한인장로회

KPCA는 1976년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
고의 소수 교회들이 모여 설립된 이래 캐나다,
멕시코, 중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
주, 일본 그리고 유럽을 포함하는 해외 한인교단
중 가장 큰 규모의 교단입니다. KPCA는 현재
미국교회협의회(NCCCUUSA)에 속한 367개교
단 중 유일한 동양인 교단이며, 미국 장로교회
(PCUSA)와 한국 예장통합 교단과 함께 목회자
이동과 교류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에벤에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 인도네시아 장상택 선교사

♥ 에벤에셀교회와 기도로 협력하는 교회
- 빅토리아한인교회

모임안내

- ☆ 주일예배 오후 1시 50분
- ☆ 금요모임 매주 저녁 7시
1562 Taralawn Crt. Burnaby

Online Service

📞 778-888-9543

🌐 vanebenezer.com

📱 카톡 오픈채팅 -
"밴쿠버에벤에셀교회 문의"



교회소식

- ♥ 소그룹모임안내: 매일 첫째주는 성찬성례와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 ♥ 이번 주 성경통독 5월 24일 이사야 25장 - 5월 30일 이사야 31장

1. 이달의 양송구절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2.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의 조이> 『하시쇼』 말씀을 매일 나눕니다. 성경통독과 맞추어 하
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3. <졸업> 우예준 학생
4. 본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장상택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 대표 영성작가 시리프

278. '용서의 원칙'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
린 양이로다 _요1:29

다행히도 요한의 메시지는 세례와 회개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메시지는 바로 가장 기본
요소인 '용서'에서 완성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죽을 그리고 부활에서 용서의 원칙은
결실을 맺는다. 죄책감에 허덕이거나 당혹감에 쓰러지지 않고 죄 된 과거에서 돌아서 깨닫
이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완전한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
리는 용서의 확신 없이 죄를 자백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성찰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슬
픔과 비참함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와 기쁨, 모험과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된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대하여
불안해 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늘과 내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성도들과 교제를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추자.

_지미 카터 Jimmy Carter

제 8권 21호 2026년 5월 24일

vanebenez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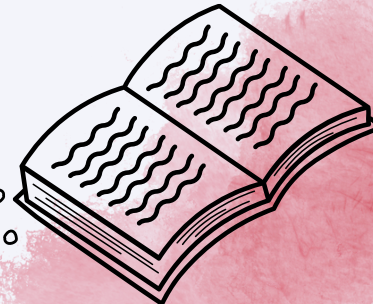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The Lord At Their Head

미가 2:13



3977 Albert St, Burnaby. V5C 2E2



주일예배

*예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Please stand all who are able

경배와 찬양 Praise&Worship	다같이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입례송 Opening	We have come to worship the Lord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서로 불러 이르되	
회 중 :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다같이 :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사죄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인도자
찬송 Hymn	20장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 20장 7절, 말라기 2장 1-3절 (구112,1328)
말씀선포 Sermon	우광현 목사
썬크림 대신 똥	
찬송 Hymn	315장
연보 Offering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파송의 말씀 Closing Responsive Reading	
인도자 :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회 중 :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도자 :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다같이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축도 Benediction	우광현 목사

소그룹나눔

3:40pm-4:50pm

- IceBreak : 내가 평소에 시간과 돈을 가장 아낌없이 투자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요? 바쁜 일상 중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내어 몰두하게 되는 나만의 관심사를 가볍게 나누어 봅시다. 예: 운동, 캠핑, 커피, 한식, 공부, 모임, 회식 등
-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를 귀찮은 의무나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은연중에 망령되게(가볍게) 대했던 모습은 없었나요?
 ① 부득이한 온라인 예배임에도 탄짓 하며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다.
 ②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 없이 습관적, 의무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③ 내 필요와 이익(돈, 성공, 위로)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했다.
 ④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 듣고,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은 무시했다.
 ⑥ 기타:
- 하나님은 제물만 거절하신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내가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① 평소의 삶과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께 합당하게 정돈한다.
 ② 분노나 원망이 일어날 때, 죄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 앞에 멈춘다.
 ③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 아래 엎드린다.
 ④ 예배와 일상을 분리하지 않고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린다.
 ⑤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핑계 대지 않고 즉시 정직하게 돌아온다.
 ⑥ 기타:
-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요즘 내 신앙생활에서 당연한 기쁨이 아니라 귀찮은 의무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루틴
 ② 내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어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돌보는 봉사의 자리
 ③ 내 중심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쏟아 드리는 주일 예배
 ④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
 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일
 ⑥ 기타:
-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문장과 각자 기도제목을 나눠요.

지난 주 연보

- 주일연보 \$ 170
- 십일조 \$ 180

온라인연보계좌

offering@vanebenezer.com

이렇게 기도합니다

- 교회를 지켜주소서
주의 몸 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며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예배를 지켜주소서
오직 예수만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 믿음을 지켜주소서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믿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 가정을 지켜주소서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 건강을 지켜주소서
질병과 스트레스,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위로 하옵소서
- 학교와 직장을 지켜주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며 성취할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 삶을 지켜주소서
비전으로 살게 하시고 목적과 기대를 주셔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베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